



##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 October/November 2009

| SUBJECT                                    | CLASS | TIME ALLOWED | MAXIMUM MARKS |
|--------------------------------------------|-------|--------------|---------------|
| <b>Korean</b><br>0521/01 · Paper 1 Reading | IGCSE | 2 hours      | —             |

Name: \_\_\_\_\_ Date: \_\_\_\_\_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Part 1**

2 □ 35588961 을 주의 깊게 읽고 0680001 에 모두 답 하 십시오.

92 래 글 은 건 공 궁의 < 계 싸 만 20 > 중의 일 부 분 있 듯 무 . 일 제 강 정 기우  
동 기 를 살 야 갓 는 942 이 인 구의 삶이 풀 게 곱 니모

이 인 국 박 사 의 병 원 은 두 가 지 의 전통적인 특 징 을 가지고 있다.

병원 안이 먼지 하나도 없이 정 결 하다는 것과 치 료 비 가 여느 병 원 의 갑 절 이 나 비  
싸 다 는 점 이 다.

그는 새로 은 환 자 의 초 진 에 서는 병 에 앞서 우선 그 부담 능 력 을 감 정 하는  
데 서 부터 시 작 한 다. 신통치 않다고 느껴지는 경 우 에는 무슨 평 계 를 대 든 , 그것도  
자 기 가 직접 나서 는 것이 아니라 간 호 원 더러 따 돌 리 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중 환 자 가 아닌 한 대 부 분 의 경 우 1 차 진 료 는 젊은 의 사 들이 했다. 원 장 은  
다만 기 록 된 진찰 카드 에 따라 환 자 의 증 세 에 아울러 경제 정 도 를 판 정 하는 최종  
진 단 을 내리면 된다.

상 대 가 친한 친 구 나 거 물 급 이 아닌 한, 외 상 이라는 명 목 은 불을 수 없었다. 설령  
있다 해도 이 양면 진 단 은 한 훈 이 라도 받지 못 하 거 나 손 해 가 나지 않도록 해준,  
그의 반 생 을 통한 의술 생 활 의 신 조 요 비 결 이 었다.

그러기에 그의 고 객 은, 일제 시 대 는 주로 일 본 인 이었고 현 재 는 권 력 층이 아니면  
재 별 의 셸 속에 드는 축 들 이 어 야 만 했다.

1945 년 8 월 하순.

아직 해 방 의 감 격 이 온 누 리 를 뒤 덮 어 소 용 돌 이 칠 때 었다.

말 복 (※&) 도 지 난 날 씨 이 건 만 여 전 히 무 더 뵘다. 이 인 국 박 사 는 이 며 칠 동 안 불 안  
과 초 조 에 휘 물 려 잠 도 제 대 로 자 지 못 했다. 무 엇 인 가 닥 쳐 올 사 태 를 오 돌 오 몰 떨  
면서 대 기 하 는 상 태 었다.

그렇게 붓 비 던 환 자 도 하나 얼 썬 하 지 않 고 월 사이 없 던 전 화 도 뜯 하 여 졌다. 입원  
실 은 최 후 의 복 막 염 환 자 었 던 도 청 의 일 본 인 과 장 이 끌려 간 후 텅 비 었다.

'는 창 문 으 로 기 웃 이 한 길 가 를 내 려 다 보 았다. 우 글 거 리 는 군 중 들 은 아 지 코 소 음  
손 속 으 로 밀 려 가 고 있 다. 굳 게 닫 혀 있 는 은행 철 문 에 붙 은 벽 보 가 한 길 을 건 너 하 안  
으

끝 곱 만 이 두 드 러 져 보 인 다.

아 니 그 곳 에 싹 어 있 는 구 절.

• 친 일 과 (해), 민 족 반 역 자 (북 ※ 배 콤 ) 를 타 도 (#) 씨 ) 하 자.)



옆에 붉은 동그아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그대로 눈앞에 선 명  
같다.

어제 저 물벽에 그것을 처음 보았을 때 의전율이 되살아왔다.  
순간이 인국박사는 쪽으로 를 흥 돌렸다.  
나야 원관 참 겠지..."

30

혼자 뇌까리 그는 다시부채를  
면서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 때들었다.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지  
보고 는 얼굴

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면서 아래위로 여부 그 춘석이 녀  
석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으로 엄습하여 어두운 밤에 거미줄을 뒤집어 쓴 것처럼  
꺼림TipTip하기만 했다.  
그놈하고 머리에서 솟아버리려도 거머리처럼 자꾸만 감아 붙는 것만 같았다.  
벌써 육개월 전의 일이다.

35

.무소에서 병보석으로 가출옥 외었다는 중환자가 업혀서 왔다.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환자의 몰골이나 업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  
되었다.

40

그러나 더 마음에 췌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집 처  
럼 들락날락 하는보다도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간부 관선급들이 시의자가 원  
이라는

체면에서도 못못지 못할 뿐더러,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신민(로 뽀뽀로)  
- 일본의 천황에 충성하는 국민 - 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  
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45

그는 응 치료만 하여 주고 입원실 없다는 가장 멋떠고도 정당한 구실로  
급 이 애

걸하 환자를 돌려보냈다.  
는 를

환자의 집이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건너편 골목 안에 있다는 것은 후에 간호원에게  
서 들었다. 그러나 그 좁은 예사로운 일이었기에 그는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흘  
려 버렸다.

50

그런데 며칠 전 시민대 끝에 있는 해방경축시가 행 구경하느라고 혜  
진을 속이

함께 대문앞에 나갔다가, 자위대 완장(ㄱ투)을 두르고 대열에 끼인 젊은이와 눈  
마주쳤다.

55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의 눈에서 불뚱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껴.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어리병병하던 이 인국박사는, 그것이 언젠가 입원을 거절당  
한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혜숙에게 듣고 야슬금슬금 주위의  
집으로 기어 들어왔다.

[중략]

자신이 잡혀온 이곳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앞일은 대체 어떻게  
뒤편 1d어 넘을 수가 없는 큰 바다가 가로놓인 것만 같았다. 풀어낼 수  
전연 더듬어지지 않는 뒤형클어진 상념 속에서 그래도 이 인국박사  
불을 붙어 일으키는 심정으로 막연한 한가닥의 기대만을 끝내 포기하지 않은 채  
천장을 멍청히 쳐다보고만 있었다.  
지난 일에 대한 뉘우침이나 가책 같은 건 아예 있을 수 없었다.

65



[중략]

“쪽 발이 꼬 나 풀, 야, 이 새 끼 야.”

고 함 소 리 에 놀라 이민국 박 사 는 흠 첫 머 리 를 들었다.

병사 군 복 에 완 장 을 찬 젊 은 이 가 쏘 아 보고 있다. 춘 석 이 다.

이 인 국 박 사 는 다시 쳐 다 볼 힘 도 없 었 다. 모든 사 태 는 짐 작 되 었 다.

이제는 죽 는 구 나, 그는 입 속 으 로 뇌 까 렸 다.

“\* 왜 놈 의 밑 받 이, 이 개 새 끼 야”

군 화 가 그의 옆 구 리 를 들 이 찬 다.

“이 새끼, 어디 죽어 보라.”

구 듯 발 은 앞 뒤 를 가 리 지 않 고 전 신 을 내 지 른 다.

등골 척 수 에 다 급 한 충 격 을 받 자 이 인 국 박 사 는 비 명 을 지 르 고 꼬 꾸 라 졌 다.

그는 현 기 증 을 일으켰다. 어 죽 지 를 끌어 바로 앞 혀 도 몸 을 가 누 지 못하고 한 쪽 으 로 쓰 러 졌 다.

“\* 민 족 과 조 국 을 팔 아 먹 은 이 개 돼 지 같 은 놈 아, 너는 총 살 이 야, 총 살...”

어 렴 껏 이 꿈 속 에 서 처 럼 들 려 왔 다. 그러나 그 에 게 는 그 말 도 아무 런 반 향 을 일으 키 지 못 했 다.

1 □ 8558961 을 읽고 다음 질 문 들 에 모두 답 하 십 시오. 답 할 때 에 는 그 대 로 옮겨 쓰 지 말 고 자 신 의 말 로 쓰 십 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 자 는 각 문 항 당 점 수 를 의 미 언 어 구 사 력 이 나 정 확 성 에 따 라 5 점 이 더 해 집 니 다. 따 라 서 총 다.)

(a) 이 인 국 박 사 의 병 원 이 환 자 를 치 료 하 는 순 서 를 요약 하 십 시오. [4]

(b) 11 줄 에서 ‘양 면 진 단’ 이란 무 엇 을 뜻 하 는 지, 그리고 그것 이 왜 필 요 한 지 구 체 적 으 로 설 명 하 십 시오. [3]

(c) 이 인 국 박 사 의 환 자 들 은 어떤 사 람 들 인 지 설 명 하 십 시오

(d) 18-9 줄 에서 이 인 국 박 사 가 불 안 하 고 초 조 해 하 는 까 닭 은 무 엇 인 지 구 체 적 으 로 쓰 십 시오. [1]

(e) 이 인 국 박 사 가 벽 보 를 보 고 전 율 을 느 까 닭 에 대 해 구 체 적 으 로 쓰 십 시오 [1]

(f) 46 줄 에서 “공 든 탑 ?” 이란 무 엇 을 의 미 하 는 지 구 체 적 으 로 설 명 하 십 시오 [1]

(g) 으 1 푸 > 수 분, 뿐 고 이 3※<sup>0</sup> 띠 때! 또 ㅁ 느 [쿠 미인<sup>0</sup> 띠 - 1 ㅁ 곡 ○ 110 묘 스 그 [2]

(h) 줄 에서 이 인 국 박 사 가 해 방 경 축 시 가 행 진 에서 마주 친 춘 석 이. 눈 에서

54-56 불 튀는 것 같은 살 기 를 던 이 유 개 = 사회: 적 측면  
똥이 똥이  
각 설 명 하 십 시오

(i) 61-5 줄 사 이 에 서 이 인 국 박 사 의 어 렵 은 처 지 를 나타 내 는 표 현 을 찾아 쓰고 그 것이 이 소 설 에 서 의 미 하 는 바 를 구 체 적 으 로 설 명 하 십 시오. [2]

(j) 해 방 이 후 이 인 국 박 사 의 심 리 적 상 태 가 사 건 의 변 화 에 따 라 어 렵 게 바 꾸 었 는 지 요약 하 십 시오 [3]

## Part 2

82855896 그 를 주 의 깊 게 읽고 04650002 에 답 하 십 시오

□ 855896 2



97 글은 책 만 /: <0 스토> 중 일 부분 있고 주인공 봉순부 이  
기른 살 % 갖는 꼬습 92 줄 좇곰 0 마

이 방삼복이는 .. 먹고 자고 궁궁 일하고, 자식 새끼 만들고 할 줄 밖에 모르는 상일  
꾼 (농부) 였었다. 삼복이가 하루 아침 무슨 생 각 이 났던 지, 돈 벌 이 를 간 답 시고, 훌쩍  
일본으로 떠나 버렸다. 그것이 열두 해 전.

떠난 지 칠 팔 년 을 별반 신통한 벌 이 도 못 하는지, 돈 한 푼 보내  
하루는 느닷 없 이 중국 상 해 에 와 있노라 기 벌 이 전해져 왔다. 그리  
없다가, 삼 년 만 에 푸뚝고 항엘 돌아 왔다.  
이번엔 처 자 식 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 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의 다 짜 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일 년  
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 엘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 이 동안 그는  
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 되었고.

[중략]

1945 년 8 월 15 일, 역사적인 날.  
이 날도 신 기 료 장수 방삼복은 종로 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 을 박 으  
면서, 해방 의 날 을 맞이 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 격 할 줄 도 기뻐 줄 도 모르 겠 었다.  
지나가는 행 인 이, 서로 모르던 사 람 끼 리 면서 덤썩 서로 껴안고 기 뻔 하 고 눈 물 을 흘  
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 을 모르겠고 차라리 썩 스 러 보일 따 름 이었다. 몰려 닫는  
군 중 이 오히려 성 가 시고, 만세 소 리 가 귀가 아파 이 맛 살 이 지 푸 러 질 지 경 이었다.  
몰려 다니고 만 세 를 부르고 하 기 에 미쳐 날 뛸 느라고 정신 이 없어, 손 님 이 없어, 손 님  
이 부 짝 줄 었다.

“우라 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중략]

그럭저럭 구 월 도 열흘 이 되고, 서울 거 리 에는 미국 병 정 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 정 들이, 거 리 를 구경 하면서 혹은 물 건 을 사 려 면 서, 말이  
못하여 답답 해 하는 양 을 보고 삼복은 무 릎 을 탁 쳤다.

[중략]

삼복은 종로 서 전 차 를 내려 동 쪽 으 로 천천히 걸 으면서 물 색 을 하였다.  
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 정 이 아니라 장 교 쯤 되는 사 람 이어야 할  
청년 회 관 앞 에서 담뱃대 를 사고 있는 하나 가, 몸 집 이 부대 하고, 여느 병 정 은 아닌  
듯 하고, 얼굴 이 사 못 선 량 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 음 에 들 었다. 구경 하는 체 하고 년  
지시 그 옆 으 로 가 섰다.

미국 장 교 는 담뱃대 를 집어 들고 기 물 스 러 하면서 연방 들 여 다 보 다 가 값 이 얼마 냐고  
“하우 머치? 하우 머치?”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 감 은, 삼십 원 이라고 큰 소 리 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 이 없어 고 개 를 깨 웃 거 리 면 서 다시금 하우 머 치 만 찾는 것을, 기회 좋  
을 씨 고 라고 삼복 이가 나 직 이  
“더티 원”

하여 주었다.

핵 돌려다 보 더니,

\*오, 캔유 스피크?”

하면서 사 못 그 러 안을 듯이 반 가 워 하는 양 이 라니. 아 스 러 지 도 록 손 을 잡고 흔 드 개  
데는 질 색 할 뻔 하 었다.

직 업 이 있 는 고 물었다. 방금 실 직 하 었 노라고 대 답 하였다.

이 자 리 에서 신 기 료 장수 코 빠 띠 삼복 이 미스터 방 으로 승 차 를 하여, 5 라 는 미국  
주둔군 소 위 의 통 역 이 되었다. 주급 십오 불 ( 이 백 사십 원 ) 가 량 의.



거진 매 일 같이 미스터 방 은 5 소 위 를 낮 에는 거 리 의 구 경 으 로, 밤 이 면 계집 있는 술  
집 으 로 인 도 하 였다.

[중략]

50

그 공 로 **에** 정 비 레 해서, 미스터 방 은 나날이 훌 륭 하 여 저 갔다. 8.15 이 전 **에** 어떤 은  
행 의 중 역 의 사 택 이라던 지 금 의 이 집 으 로, 현 저 동 그 집 에서 옴 아 오 기 는 5 소 위 의  
통 역 이 되는 사흘 후 였 다.

하 루 에도 방 선 생 을 찾는 이가 여러 패 썩 있었다. 그들의 **타고**  
고, 인 력 거 짜 리 도 흔치 않았 다. 그렇게 찾 아 오는 그들은 결 단 코 벽 으 로 오는  
드물었다. 좋은 양 과 자 상자 밑 바 닥 에는 으레 따 로 이 뿌듯한 봉투 - 가 들 었 곤 하였다.

55

[중략]

< 서 주 사 가 이거 두고 갑 디다."

들고 올라온 각 봉투 한 장 을 남 편 에게 건 네 어 준다.

"어디?"

60

받아 10 는다. 수표 한 장 이 나온다. 액면 만 원 짜 리

미스터 **별 1**"

\* 겨 우 돈 만 원 야 ? 우 라내면서, 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그걸 십만  
만 원 줌 남 겨 먹을 테 면 서, 그래 겨우 돈 만 원 야 ? 엠 병 혈 자식, 내가 엠 피 현 테  
말 한 마 디 문, 전 어느 지경 같지 모를 줄 모르 구 서."

65

[중략]

"머, 지금 당 장 이 래 내 입 한 기관총 들 멘 엠 피 가 백 명 이구  
천 명 이 구 들 끓 어 내 두, 러 가 서, 들이 번만 쑥 발 을 떨어 진다 만들어 동 치면, 니 다 쑥 발 을."  
"허튼 소 리 가 아니라 내 말 한 마 디 면 고만 젤 찢 맵 니다."  
미스터 방 은 그 리 고 는 이승만 냉수 그 박 룻사 을 두 집 어 한 모금 물고 꿀 다 적 꿀 적 양 치 를 한다.  
버 름 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 을 먹 으면서 양 치 하 는 버 름 이 생겼  
었다.

70

양 치 한 물 을 처 치 하려고 휘 휘 돌 러 보다, 일 어 서 서 노 대로 성 큼 성큼 나간다. 마루 내  
현관 정통 위 었 었다.

미스터 방이 그 걸 쪽 한 양 첫 물 을 마루 아 래 로 아낌없이 최 배 알 는 바로 그 순 간 이

75

었다. 그 순 간 공교 롭 게 마침 그를 찾 으 러 온 5 소 위 가 현 관 일단 들어서  
이 도,

려다 말고 방이 마 루 로 나오 는 기 척 들 렸 기 때문에) 뒤로 서 걸 음 도  
(미스터 이 너

로 물러나,

부 르 면 서 웃 는 얼굴 을 쳐 드는 순 간 과 그만 일 치 가 되었었다.

80

"에 구 머니!"

놀라 질 겁 을 하 였 으 나 뺄 어진 양 첫 물 귀 귀 한 냄 새 와 더불어 폭 포 처 내 려  
이미 은

쏟아져, 웃 으 면 쳐 드는 5 얼굴 정 통 에 가 차 르 르.  
서 소 위 의

"유 데블!

이 기 급 할 자 식 이라고, 5 소 위 는 주 먹 질 을 하면서 고 함 을 질 렸고 그 주 먹 이 쳐 든 채  
그대로 있 다 가, 일 번 허 둥 지 동 버 선 발로 뛰 쳐 나와 손 바 닥 을 짹 비비는 미스터 방  
의 턱 을,

85

"\* 상 놈 의 자식!"

하면서 철 , 어 퍼 컷 으 로 한 대 갈 겼 더라고.



2 □ 388896 1 과 885580962 를 읽고 다음 **에** 답 하 십시오.

68988961 의 주인공 이 인 국 박 사 와 88588962 의 주인공  
이의 공 통 점 과 차 이 점 을 정 리 하 십시오.

[15]

답 안 의 내 용 에 따 라 15 점 까 지 주 어 지 며 답 안 의 언 어 구 사 력 에  
주 어 집 니 다. ( 문 체 와 구 성 에 5 점, 언 어 의 정 확 성 에 5 점)

*Copyright Acknowledgements:*

Passage 1 © Jean Kwang Yong; Kapitan Lee; Eulyn Munwhasa; June 2004.  
Passage 2 © Chue Man-Sik; Mr Bang, Chue Man-Sik Danpyonseon; Book and Book; Jan 2008.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